

한라시론



유 동 형
진로·취업컨설팅 편편집 대표

사업을 해 본 경험차

직원을 뽑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작게라도 사업을 해 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 간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나의 경험에 의한 것이나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번은 팀장을 뽑아서 한 개의 프로젝트를 맡겨서 일을 했다. 실력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1개월 수습기간을 거쳐서 급여를 조정하기로 했다. 다른 팀장에 비해서 실력이 좋아서 일들을 깔끔하게 해냈다. 팀원들과 사이도 좋아서 평가도 좋았다. 그런데 1개월이 지나고

개인사정으로 생활비가 많이 필요함에 따라서 고민을 했다. 회사에서는 규정이 있으니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최대한 성의를 보였다. 고정급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성과급이나 기타 수당으로 상향조정을 해줄 수 있었다. 그렇다고 당장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여러 상황을 봐서 적용해 줬다. 하지만 이 팀장은 마음이 급했다. 내가 밖에 나가면 이 정도는 받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 2주 정도 고민을 하더니 짐을 싸서 주위에서 다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달만 더 기다려 보라고 했지만 이미 마음이 정해져서 어쩔 수 없었다.
다른 팀장이 또 들어왔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스펙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

런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다. 일에 대한 경험은 좀 부족해도 회사 조직이나 영업, 회사자금 문제 등에 대해서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주는 마인드를 가졌다. 1달 동안 수습을 하면서 모든 능력을 다해서 일들을 처리해 나갔다. 너무 무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집중적으로 일들을 해나갔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접어들면서 사장님도 이 팀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 안 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정도가 되었다. 정말 사장처럼, 내 일처럼 했다. 사장 입장에서는 팀장이 사장처럼 일하는데 뭘 더 바라겠는가? 이 팀장이 이렇게 내 일처럼 일하는 데는 사장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했다. 3개월이 지나면서는 그 위치

에 상응하는 임금으로 대우해 주며 일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고 전폭적으로 뒤에서 지원해 줬다. 이렇게 한 분야에서 팀장이 역할을 해내자 그 분야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두 팀장이 동일한 환경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둘은 일들을 해내는데 태도가 달랐다. 이 둘이 크게 달랐던 것이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건다. 그건 아마도 사업을 해 본 경험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사장의 사자가 오죽하면 '죽을 사'자라고 할까. 그만큼 어려운 자리라는 것이다.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자리가 사장이란 자리다. 근로계약서대로 무작정 요구하게 되면 둘의 관계는 깨지게 된다. 큰 손해가 아니라면 사장인 상대 입장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편집국 25시

무인화의 벽



박 소 정
경제산업부 차장
cosorong@ihalla.com

최근에 갔던 카페의 광경이 떠오른다. 60대 후반의 어르신인 카페 안으로 들어와 주문을 하려고 직원을 불렀다. 혼자서 음료를 만들고 있던 직원이 한마디를 건넸다. "주문은 키오스크로 해주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키오스크 앞에서 이것저것 눌러 보던 어르신은 이내 발길을 돌렸다.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되고 있는 '디지털 디바이드(정보 격차)' 현상이 피부로 와닿는 순간이었다. 코로나로 비대면이 익숙해지면서 도내 요식업계에도 손님 주문·결제하는 무인 디지털 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주문 하나에도 위축되는 고

령층의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다반사다. 조작도 어렵고, 용어도 어렵고, 뒷사람 눈치도 봐야 하고...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환경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고령층에게는 넘어야 할 벽이 더 생겨난 것이다.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교육하는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지난해 제주에서는 2만9000명이 수업을 들었다고 한다. 그만큼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비롯한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가 절감 차원에서 물가와 인건비 부담, 구인난에 대응해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업계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수년간 무인화 바람이 우리네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여러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보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계와 인식은 부족한 모습이다. 이들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무인 정보 단말기 접근성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가이드라인이어서 강제성이 없다.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

뉴스-in

첫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는 내년부터

"당사자 의견 수렴 관심" 오 부시장 특별교부세 요청

○... '제주도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으로 올해 5월 27일이 첫 청소년의 날이지만 지난 10일자로 조례가 시행되면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본격적인 기념행사는 내년부터 예정.
이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하고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은 청소년 주간으로 정해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청소년 인권 증진 연구 발표, 모범청소년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제시.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 제주에서도 청소년의 날이 제정된 걸 반기면서도 일부에선 "청소년 정책에 영향을 주는 청소년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사전에 청소년단체나 당사자 의견 수렴이 부족해 보인다"며 아쉬다는 반응. 진선희기자

오 부시장 특별교부세 요청

○...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이 24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역현안 해결 및 재난 안전관리를 위해 2023년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며 결과가 주목.
오 부시장은 "18만 서귀포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지역현안 해결 및 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정교부부에 지역현안 9건·38억3000만원, 재난안전 3건·17억5000만원을 각각 신청했다"며 "지난해 상·하반기 특별교부세 정교부부를 통해 지역현안 1건·3억원과 재난안전 3건·1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지역현안사업과 재난예방사업에 투자했다"고 전했다. 백근탁기자

사설

'제주청소년의 거리' 활로 모색해야

5월은 청소년의 달이지만 활기가 넘쳐야 할 제주청소년의 거리 한산하다. 많은 예산을 들여 청소년의 거리를 조성했지만 기대만큼 청소년이 몰리지 않는다. 청소년들이 바라는 특화 거리로 조성되지 못한 탓이다.
청소년의 거리는 제주학생문화원, 제주도서관, 수운근린공원 등을 아우른다. 1999년 5월 1일 진취적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소년의 거리로 선포됐다. 이 일대엔 야외 공연장, 농구대 외에 보행로를 따라 조형물, 조형물, 포토존 등이 설치됐다. 올해도 이도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들여 보행로 혼잡도를 낮추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이용은 저조한 편이다. 토요일 위주로 청소년 어울림마

당과 거리 버스킹이 진행되고 있으나 월 1-2회에 그쳐 평소에 한산하다. 또 주변에 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이 위치해 있어 야외 행사 시 음향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주변에 청소년시설이 없는 것도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집근성이 떨어지고 선호도가 낮은 청소년의 거리를 재검토하는 일각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청소년의 거리가 청소년이 즐겨 찾는 곳으로 착근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의 거리 운영위원회에서 배제된 중학생 등을 참여시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거리 콘셉트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들의 요구가 집약된 새로운 특화거리로 탈바꿈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늘리는 등 거리 활성화를 위한 활로도 모색해야 한다.

종합스포츠타운을 제주 랜드마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종합운동장 시설 개선과 스포츠와 문화·관광 등 복합시설 도입을 위한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5월 중에 발주하기로 했다.
1968년 주 경기장을 시작으로 1980년대까지 지어진 제주종합운동장은 시설 노후화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때문에 전문체육을 위한 시설은 고사하고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도 낙제점을 받은 지 오래다.
늦었지만 스포츠와 연계 가능한 문화·관광 등 복합시설 도입을 통한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복합시설 등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

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추계 및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 수익시설 도입, 향후 관리·운영계획 및 2032년까지 단계별 시설확충 계획(안)도 수립하게 된다.
제주 종합스포츠타운은 스포츠·문화·관광 등이 결합한 복합 시설에 공원 기능까지 겸비해 구제주와 신제주를 연결하는 성장거점으로 중심축 역할 및 제주의 대표명소로 조성해야 한다. 구도심 활성화도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한라산을 빼면 이렇다 할 랜드마크가 없는 실정이다. 가장 '제주 오라 스포츠파크(제오파크)'를 제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최고의 공간 조성을 통해 도민들에게 최고의 스포츠와 문화예술, 휴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양씨 올생(향년 99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5월 25일
아들 김홍순, 김귀순, 김중찬, 김현규, 사위 고창일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신금옥(향년 90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5월 25일
아들 이남준, 이남희, 며느리 이영순, 오연화, 사위 임명수, 오수용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성명: 망 김애자(1965. 4. 20. 생)
최후주소: 서귀포시 중문로 41번길 9, 302(중문동, 백구연립주택)
상기자는 2016년 4월 1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3년 5월 22일 제주지방법원 2023-단11022호로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이번 제102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고처: 서귀포시 중문로 41번길 9, 302호 (중문동, 백구연립주택)
2023년 5월 25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강명재, 강재희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적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월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